1회전 탈락 예상 깨고…광주 문정초 배구 '깜짝 메달'

6학년 4명과 4학년 2명이 주전으로 손발 맞춰왔지만 대회규정상 4학년 출전 불가에 5·6학년 2명 긴급 보강 출전

배구공 만진지 한달 된 선수도 "한번 해보자" 한마음 도전 파란 일으키며 값진 동메달

광주 문정초등학교가 소년체전에서 8년만에 값진 메달을 획득했다.

30일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시배구협회에 따르면 문정초는 이날 경북 구미전자공고체육관에서 열린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남자초등부 4강전에서 울산 언양초에 세트스코어 0-2(12-25, 20-25)로 패했지만 공동 동메달을 획득했다.

문정초는 지난 2014 인천에서 열린 제41회 소년체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강팀.

하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1회전 통과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약체였다.

올해들어 6학년 4명과 4학년 2명 등 6명의 주전이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왔으나, 대회 규정상 5·6학년만 출전가능하다고 뒤늦게 전해지면서 5학년과 6학년에서 1명씩을 긴급히 보강해 대회를 준비했다. 보강된 6학년 선수 가운데는 배구공을 만진지 1개월짜리 선수도 있다.

이런 난관을 뚫고 문정초는 이번 체전에서 8년만에 입상하는 값진 성과를 올렸다.

선수단 전체가 패기 넘친 플레이와 단단한 팀워크를 발휘하며 4강까지 올랐다. '한 번 해보자'는 도전정신으로 값진 결실을 맺었다.

뚜껑이 열리자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 전 선수가 한 발씩 더 움직이는 플레이로 1회전에서 순천 대석초를 2-0(25-11, 25-16)으로 완파하더니, 2회전에서는 강호 부산 금명초를 풀세트 접전끝에서 2-1(25-16 19-25 15-11)로 이겨 파란을 일으켰다. 상승세를 탄 문정초는 4강전에서 또 다른 도전에 나섰으나 얇은 선수층에 따른 체력 저하로 아쉬운 눈물을 삼켜야 했다.

문정초의 동메달은 이숙영 교장과 오영준 감독교사, 김지혜 코치, 선수들이 '원팀'으로 일궈낸 결과로 평가된다.

오영준 감독교사는 "교장선생님의 관심과 지원, 김 코치의 열정적인 지도, 선수들의 도전정신이 한 데 어우러져 값진 메달을 획득할 수 있었다"며 "선수들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직접 확인한 만큼 다음 대회에서는 더 나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갑수 광주시배구협회장이 30일 소년체전에서 동메달을 따낸 문정초 선수들을 격려하고 있다. 〈광주시배구협회 제공〉

광주 초등부 검도 소년체전 단체전 우승 '2연패'

전국소년체육대회 초등부 검도 단체전에 출전한 광주 학생들이 우승을 차지하며 2연패를 달성했다.

30일 광주시검도회에 따르면 광주 검도 초등부 대표팀이 경북 구미시 장애인체육관에서 열린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이로써 2019년에 열렸던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검도 초등부 단체전 우승에 이어 2연패의 위업을 달성했다. 2020년(49회), 2021년(50회)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소년체육대회 초등부 경기가 열리지 않았다.

광주 대표팀 선수단은 윤찬희·권석(이상 하백초 6학년)·옥하준·김우진(이상 문우초 6학년)·임도윤(문흥중앙초 5학년)·허경도(고실초 5학년)군 등 6명이다.

이들은 1차전에서 전북을 2-1로 이긴 뒤 2차전 상대 충남을 3-1로 꺾었다. 준결승에서는 인천을 4-1로 눌렀다.결승전에서는 경북까지 2-0으로 제압, 금메달을 차지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국소년체전 검도 단체전에서 우승한 광주 선수들이 우승 트로피를 들고 활짝 웃고 있다. 〈광주시검도회 제공〉

보스턴, 12년만에 NBA 챔피언결정전 진출

보스턴 셀틱스가 12년 만에 미국프로농구(NBA) 챔피언결정전에 진출했다.

보스턴은 30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FTX 아레나에서 열린 2021-2022 NBA 동부 콘퍼런스 결승(7전 4승제) 7차전 마이애미 히트와 원정 경기에서 100-96으로 이겼다.

4승 3패로 동부 콘퍼런스 정상에 오른 보스턴은 2009-2010시즌 이후 12년 만에 NBA 챔피언결정전에 나가게 됐다.

보스턴의 챔피언결정전 상대는 서부 콘퍼런스 우승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다.

챔피언결정전(7전 4승제) 1차전은 한국시간으로 6월 3일 오전 10시 골든스테이트 홈 경기로 펼쳐진다.

보스턴은 이날 7차전에서 제이슨 테이텀이 26점, 10리바운드, 6어시스트를 기록했고 마커스 스마트와 제일린 브라운이 24점씩 보탰다.

보스턴의 테이텀은 올해 신설된 콘퍼런스 결승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됐다. /연합뉴스

한국 여자 에페 펜싱월드컵 단체전 우승

광주 서구청 강영미 등 맹활약…최인정 개인전 우승 2관왕

한국 펜싱 여자 에페 대표팀이 국제펜싱연맹(FIE) 월드컵 단체전에서 정상에 오르며 세계랭킹 1위를 달렸다.

최인정(계룡시청), 송세라(부산시청), 강영미(광주 서구청), 이혜인(강원도청)으로 구성된 여자 에페 대표팀은 29일(현지시간)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열린 월드컵 단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이날 8강전에서 독일에 39-37, 준결승전에서 미국에 35-34로 신승을 거두고 결승에 오른 한국은 결승전에선 중국을 34-29로 제압했다.

여자 에페 대표팀의 '에이스' 최인정은 개인전에서 우승한 데 이어 단체전 우승도 이끌어 이번 대회 2관왕에 올랐다.

한국 여자 에페는 최인정이 개인 세계랭킹에서 1위를 질주하고 있고, 단체전 랭킹에서도 1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펜싱 여자 에페 대표팀이 29일(현지시간)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열린 국제펜싱연맹(FIE) 월드컵 단체전에서 정상에 올랐다. 왼쪽부터 송세라, 강영미, 최인정. /연합뉴스

장애인생활체육 탁구대회 광주시장애인탁구협회는 지난 28일 광주시장애인실업팀탁구장에서 100여명의 탁구동호인들이 참여한 '2022 광주시장애인생활체육 탁구동호인대회'를 개최했다. 광주시장애인탁구협회 소속 빛고을탁구클럽 외 4개 클럽 동호인들이 참가했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제공〉

즐거운 문화산책

LOTTE CINEMA | 충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범죄도시 2
2관	범죄도시 2
3관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 몬스터 싱어: 매직 인 파리
4관	범죄도시 2
5관	범죄도시 2
6관	범죄도시 2
9관	범죄도시 2
7관 씨네커플	범죄도시 2, 그대가 조국,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
8관 씨네커플	안녕하세요, 오마주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획공연 포커스
Would You Follow Maytree? :)
일시 : 2022.06.15.(수)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야외무대
문의 : 062-613-8233

광주국악상설공연
일시 : 2022.05.03.(화)~31.(화)
매주 화요일 ~ 토요일
장소 : 광주 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